

# “아동학대 없는 광주로” 시, 조기지원 체계 구축

북구·광산구 30가구 선정 시범사업...50만원씩 지원  
위기 가정 선제 지원...양육코칭 지원·양육상황 점검

광주시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기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선다.

광주시는 2일 “보건복지부 공모 ‘2025년 아동학대 예방·조기 지원 시범사업’에 북구와 광산구 등 2곳이 선정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조기지원 체계 사업은 아동학대 판단 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아 일반사례로 판단했으나 향후 아동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아동학대 판단 전 긴급하게 심리·신체·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족 구성원에 가구당 50만원씩 총 3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아동-부모 간 갈등이 있거나 아동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전문 양육코칭 지원과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아동의 성장을 확인하고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하는 양육상황 점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영동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학대 조기 지원 체계를 구축해 대상 가정에 선제적으로 예방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화순 키즈라라, 교육기부 진로체험 기관 인증

2027년까지...30여개 다양한 직업 체험 프로그램 진행  
교육·재미 결합 에듀테인먼트 시설 학습공간으로 ‘각광’

화순 어린이직업체험테마파크 키즈라라(대표이사 문팔갑)는 2일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 학생에게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교육부가 체험처의 성격과 환경 및 안정성, 프로그램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한다.

키즈라라는 2023년부터 광주·전남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화순지역 학생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키즈라라는 이번 선정에 따라 2027년까지 ‘교육

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기관’으로 활동하며, 진로 체험 프로그램 홍보 및 운영 관련 컨설팅을 지원받는다.

2023년 3월 개관한 어린이직업체험테마파크 ‘키즈라라’는 30여개의 직업을 실제로 가까운 형태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중심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직업을 체험해보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어린이 교육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소방관과 경찰관을 비롯한 유투버, 치과의사, 은행원, 조종사, 승무원, 아나운서 등 어린이들이 관심을 갖는 30여개의 직업을 체험해보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린이는 물론 학부모의 만족감도 높고 있다.

문팔갑 키즈라라 대표이사는 “키즈라라 어린이 직업체험관은 교육과 재미가 결합된 에듀테인먼트



시설로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이 창의적 통찰력을 가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키즈라라 직업체험관 이용 희망자는 교육부의 진로체험 전산망 ‘꿈길(www.ggoomgil.go.kr)’ 또는 키즈라라 고객센터(1600-7953)로 신청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바우처 인상

시, 신청때부터 월 1만4000원

광주시는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9~24세(2016년 12월 31일~2000년 1월 1일생) 여성 청소년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에 지원한다.

올해부터 지원 금액이 1인당 월 1만3000원에서 1만4000원(연 최대 16만8000원)으로 인상됐다.

바우처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한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없는 한 해마다 새롭게 신청할 필요 없이 24세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또는 주 양육자)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복지로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 구입이 가능하다.

단 바우처는 해당 연도에만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므로 반드시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전국 첫 ‘민관합동 품질혁신기획단’ 실무지침 광주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길라잡이’ 나왔다

현장기술자·공무원 논의...품질향상·사고예방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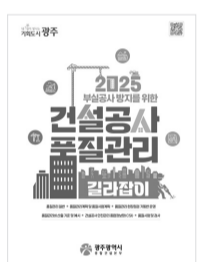
광주시는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무지침서인 ‘건설공사 품질관리 길라잡이(사진)’를 무료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실무지침서는 전국 최초로 광주시가 구성한 ‘민관합동 건설공사 품질혁신기획단’ 전문가들과 2024년 광주지역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기여한 우수 현장 기술자(감리단장·현장 소장·품질실장), 공무원이 함께 논의한 결과물 등을 담은 것이다.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 공무원과 발주자·감리자·시공자 등 건설공사 관계자들이 실무형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현장점검요령, 질의응답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건설공사 단계별로 품질관리 주요 확인 사항과 관련 법령에 따른 벌칙 규정, 관련 양식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시하고 있으며, 부실공사와 가장 밀접한 콘크리트 분야에 대한 현장 점검 요령을 사진으로 알기 쉽게 구성했다.

주요 내용은 ▲관련법령 등 품질관리 일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 계획 수립 방법 ▲주



요지적사항과 현장점검 요령 ▲품질관리비 산출 기준 및 예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사용법 ▲품질시험 및 검사 기준 등이다.

또 품질관리 불량 등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주택법에서 각각 ‘감리자와 공사감독자의 공사 중지 권한’ 등도 별도 정리했다.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별 공통언어를 함께 수록했다.

신재욱 광주중합건설본부장은 “이번 지침서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품질문제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무지침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현장 적용성을 높여 공무원과 건설공사 관계자들의 품질관리 역량 강화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교통공사 ‘CEO와 함께하는 북토크’ 광주교통공사 조익문 사장이 최근 서구 마곡동 본사에서 ‘CEO와 함께하는 북토크’를 열고, 임직원 소통 활성화 및 책임은 일터 문화 확산을 강조하고 있다. <광주교통공사 제공>

# 광주시, 청년위원회 위원 공모

5일까지...학생·청년활동가·직장인·취업준비생 등 35명  
청년 시정 참여·청년정책 제시·국내외 단체 교류 활동

광주시는 ‘제10기 광주시 청년위원회 위원’을 오는 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현재 광주시에 거주하는 학생, 청년활동가, 청년창업가, 직장인, 취업준비생 등 청년 문제에 관심이 많은 19~39세(1985년 1월 22일생부터 2006년 1월 21일생까지) 청년이며, 모집인원은 총 35명 이내다.

지원자는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와 광주청년통합플랫폼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2월 5일까지 담당자 이메일(sookimanse@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제10기 청년위원회는 이번 모집을 통해 선정된 35명과 함께 제9기 청년위원 중 연임하기로 한 15명을 포함해 총 50명으로 구성된다.

청년위원은 1년 동안 지역 청년의 의견수렴과 정책 제안, 청년문제 개선방안 모색 등 각종 시정 참여를 통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제시하고, 국내외 청년단체와 교류 활동을 펼친다.

권운숙 광주시 청년정책과장은 “청년위원회는 청년들의 시정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는 기구”라면서 “청년정책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이 적극 참여해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함께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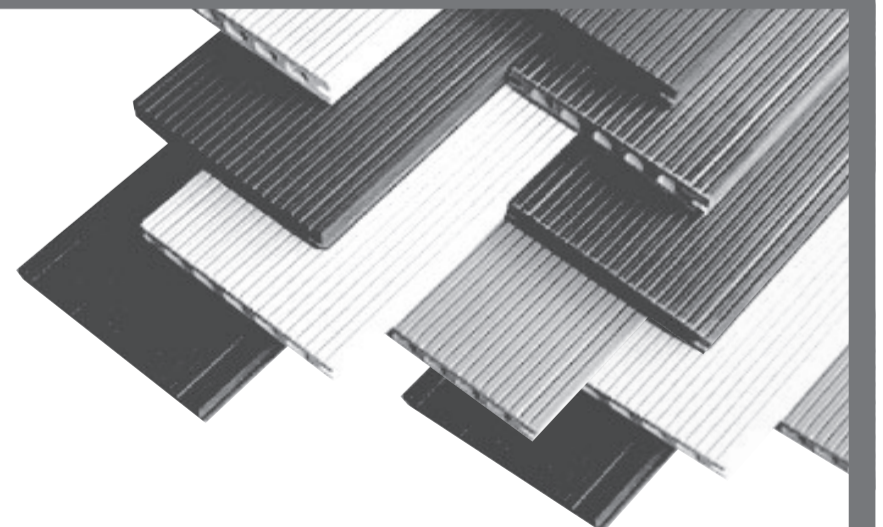
광주시는 2015년부터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청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제9기 청년위원회 활동을 지원해 39건의 우수 청년 정책이 시정에 반영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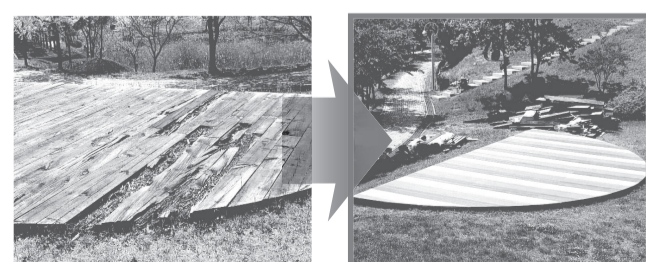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